선

(743)

주체107
(2018)
6

차 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 1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는 조중친선 ······ 4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 1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였다 ······ 1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문재인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 1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하시였다 ······ 14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 1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였다 ······ 17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 1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 2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 2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22

태양절을 맞으며 ······ 23

봄계절에 울려퍼진 흠모의 노래 ······ 28

세쌍둥이 ······ 32

첫 4중 태권도세계선수권보유자 ······ 34

인간사랑의 화원속에 ······ 36

탐구로 이어온 40여년 ······ 38

고려시기의 절유적 발굴 ······ 38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 40

소식 ······ 41

표지: 대동강반에서 본 미래과학자거리　　사진 김주혁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지난 4월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과업에 대하여
2.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3. 조직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변들이 련발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 병진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4월

투쟁의 당면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망적으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들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더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서와 과학교육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과 그 원인들에 대하여 분석총화하시였으며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교육사업문제부터 토의하는것은 우리 당이 과학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 내세우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과학교육사업을 최대로 중시하시고 혁명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 조선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는 조중친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14일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규모의 관록있는 예술단을 인솔하고 조선을 방문한 송도부장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송도동지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습근평동지의 따뜻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지도간부들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얼마전에 있은 중국방문의 잊을수 없는 나날 중국동지들이 따뜻한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여준데 대하여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송도동지는 조선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중국예술단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따뜻한 정과 열정적이며 특수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히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이 평양방문기간 공연활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과 이를 계기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이 더욱 소통하고 조중예술교류의 새시대를 창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두 당사이의 고위급대표단교류를 비롯하여 당적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사이의 협조와 래왕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적극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으며 중국예술단의 발레무용극 《붉은 녀성중대》를 관람하시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중앙발레무용단의 발레무용극 《지젤》을 관람하시였다.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중국예술단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공연관람에 앞서 손님들과 화기에 넘치는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중국의 첫 전문발레무용단으로서 60년에 가까운 력사를 가지고있는 중앙발레무용단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랑만주의발레무용극의 대표작인 발레무용극 《지젤》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을 또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송도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따뜻한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바래우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송도동지를 또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였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뉴대와 호상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문화예술교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직접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송도동지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성과는 전적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와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은 앞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전통적친선단결의 기반을 토대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일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의 정 넘쳐흐르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송도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따뜻한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바래우시였다.

글 김현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판문점은 긴긴세월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력사의 한복판에서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훌날려버리고 분렬사상 있어보지 못한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으로 태동하고있었다.

오전 9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을 인솔하시고 판문각을 나서시여 판문점분리선앞에 이르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남측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판문점분리선앞까지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에로 나가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는 모습은 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을 커다란 충격과 열광, 환호와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문재인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첫걸음을 의의깊게 장식한 수뇌분들을 북과 남의 인사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남측 어린이들이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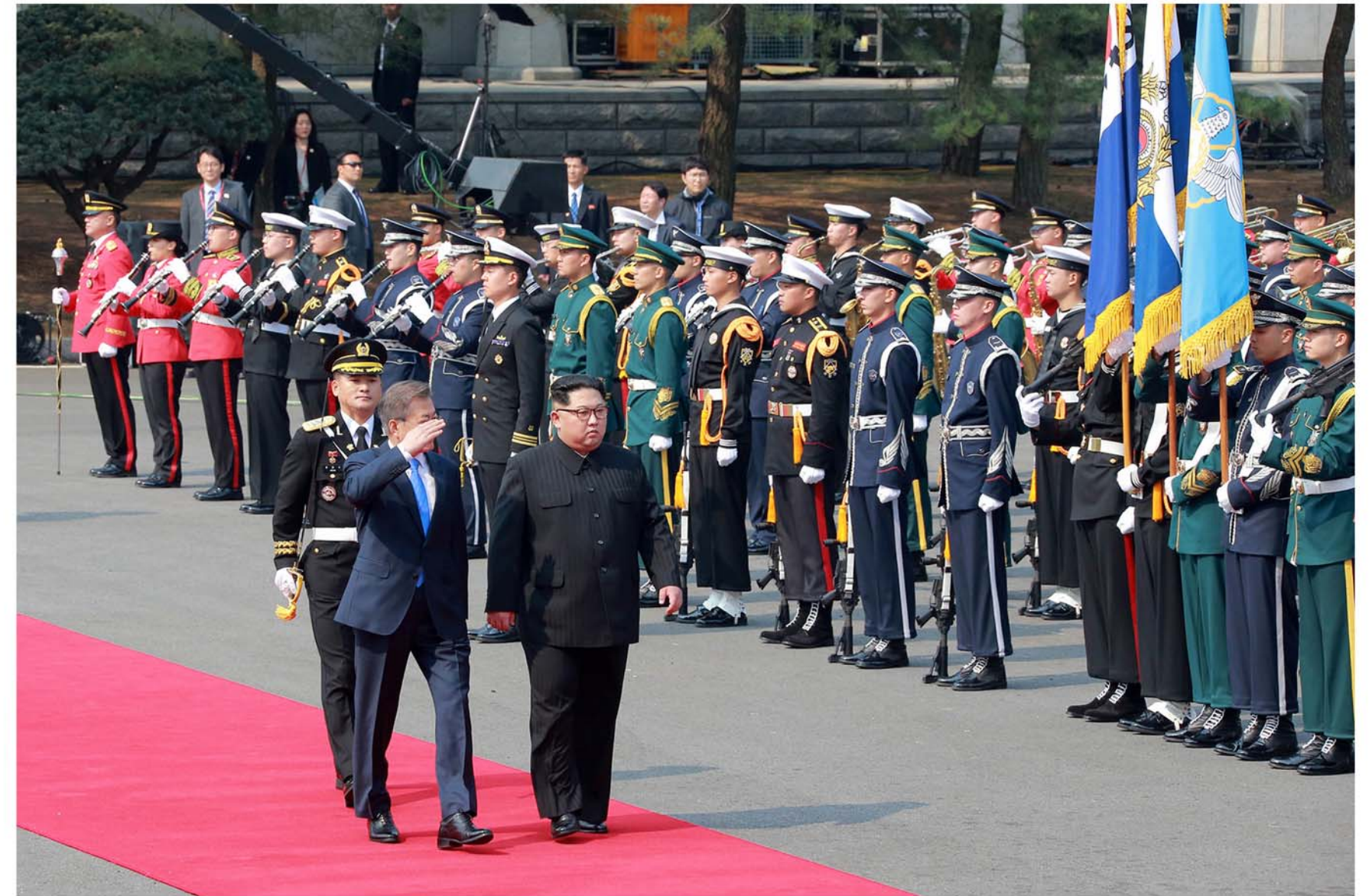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국군의장대사열장으로 향하시였다.

전통악대가 선두에서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환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앞광장에는 군악대와 륙, 해, 공군의장대, 전통의장대, 전통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국군의장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으며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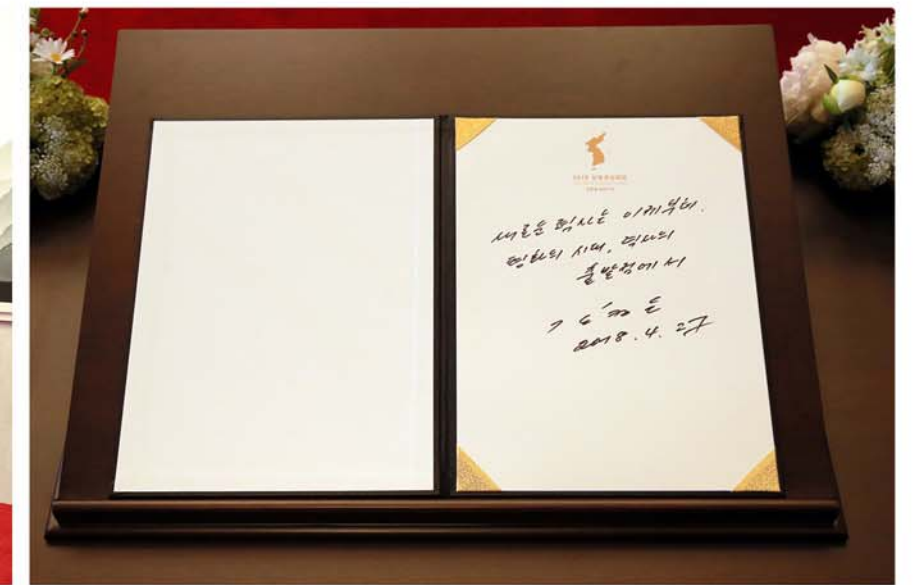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영접나온 남측인사들을 소개받으시고 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우리측 간부들과 인사를 하였다.

북과 남의 인사들은 수뇌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 최휘동지, 김여정동지, 리선권동지, 무력기관 간부들인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남측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영찬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사이의 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듯 날씨도 화창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흉금을 터놓는 대화가 계속 이어져 우리들사이에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시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과 민족의 중대사를 진지하게 론의함으로써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슬기롭게 개척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에 앞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

이라는 친필을 남기시고 문재인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였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북과 남에서 각각 준비한 백두산과 한나산의 흙으로 합토하고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함께 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 표식비가 소나무옆에 세워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표식비 제막포를 벗기시였다.

표식비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식수가 끝난 다음 북남수뇌분들께서는 표식비와 소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수행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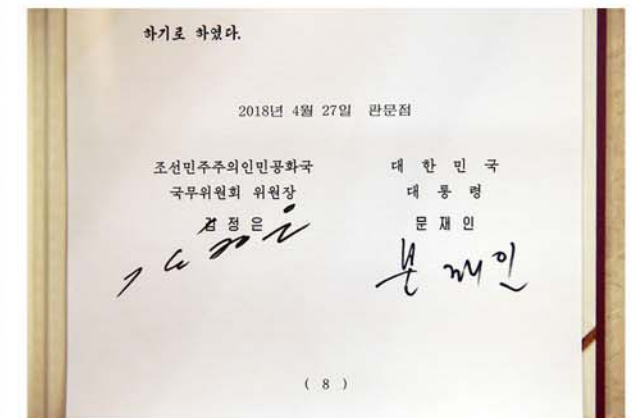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기념식수가 끝난 후 산책하시며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재인

(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을 축하하여 문재인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영찬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참가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서명식이 끝난 후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북남수뇌들은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 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북과 남은 민족분렬로 산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 15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 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을 련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페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서해 《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인민무력상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령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① 북과 남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북측이 취하고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론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만찬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남측지역방문을 환영하여 문재인대통령이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마련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최휘동지, 김여정동지, 리선권동지를 비롯한 수행간부들, 수행원들과 함께 만찬에 초대되시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여러 정당 대표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연고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남측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평화의 집》에 도착하신 리설주녀사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만찬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께서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시며 정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성의껏 만찬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문재인대통령내외분들께서는 만찬장앞에서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어 수뇌분들께서 만찬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판문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두 수뇌분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만찬에서는 먼저 문재인대통령이 환영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남측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여러가지 료리들을, 우리측에서는 옥류관의 평양랭면을 연회상에 올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만찬은 시종 혈육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만찬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축하하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의 공연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평화의 집》에서 나오시자 북남인사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야외에 마련된 초대석에 등단하시여 남측에서 준비한 환송공연 《하나의 봄》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공연이 끝난 후 북남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은 뜨겁게 손을 잡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측인사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평화의 집》을 떠나시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의지의 발현이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고 당중앙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글 김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각계층 근로자들과 외국손님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되였다.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자주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변혁이 태양절과 잇닿아있음을 뜨겁게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조선로동당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한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

송화미술전람회,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조선우표집중전시가 있었다.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과 각 도들의 **김일성**화전시회장으로 절세위인을 우러르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다.

평양과 지방의 극장과 야외무대 등에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예술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경기장과 체육관 등은 제29차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 등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로 흥성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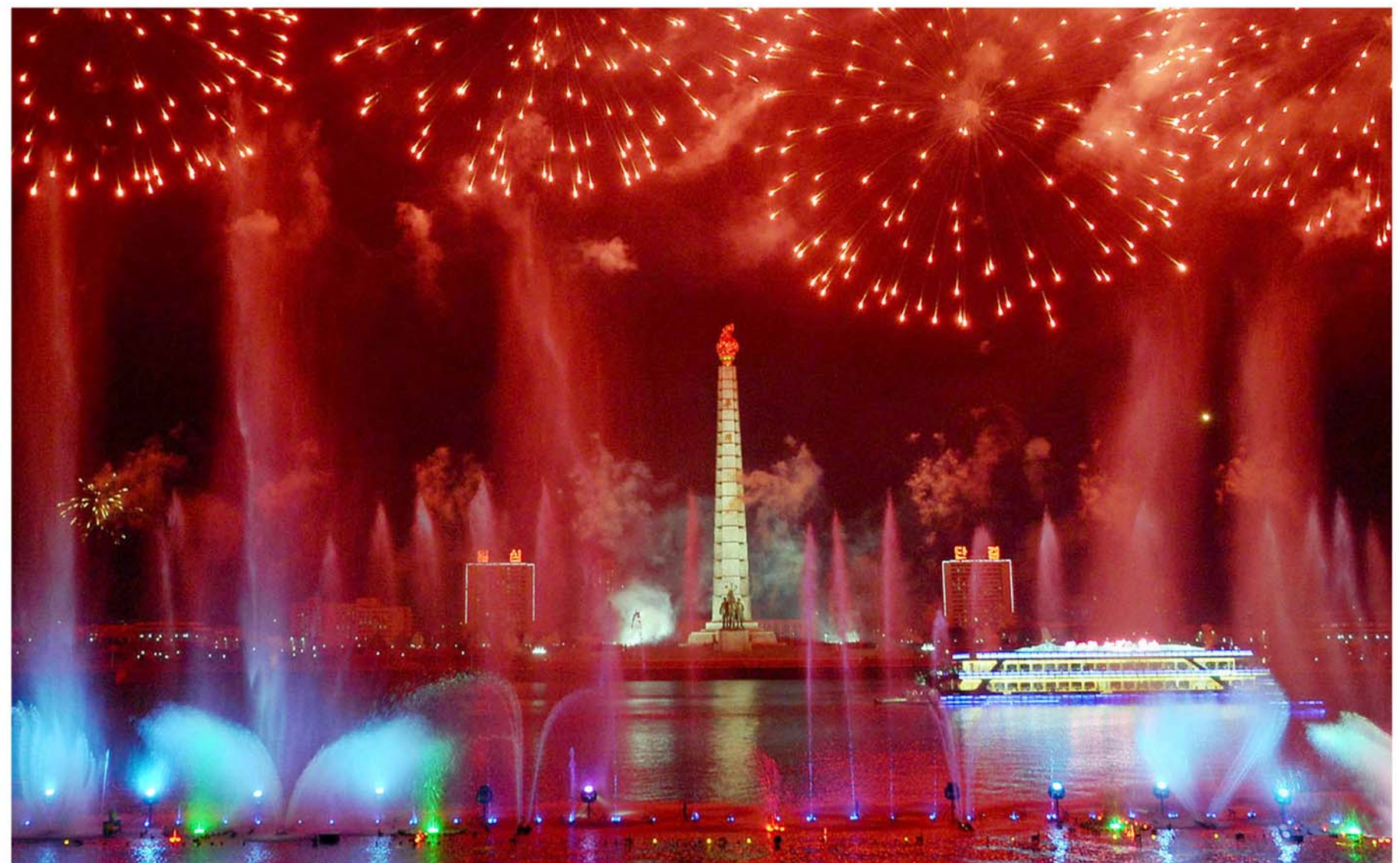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저녁 평양에서는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리광성, 리명국, 홍광남 글 최광호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와 제3차 사탕, 과자조각전시회가 있었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1차 평양국제성악콩클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봄계절에 울려퍼진 흠모의 노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시안의 극장, 음악당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축전무대들에서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경모의 정을 담아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전인민적송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장내를 끝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공연들에서 출연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등의 노래들에 담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축전무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노래들이 올라 관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라오스, 꾸바, 끼쁘로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예술인들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는 진보적인류의 념원을 풍만한 성량과 세련된 연주, 째인 안삼블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축전무대들에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정서를 반영한 노래와 춤, 기악들과 난도높은 동작들을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없이 형상한 교예종목들도 올라 축전무대를 환희롭게 하였다.

해외동포예술인들도 민족적색채가 짙고 흥취나는 민요와 무용, 기악으로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17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상이 있었다.

중국중앙발레무용단에 축전최고상인 단체특별상이 수여되였다.

로씨야 엠. 예. 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합창단, 벨라루씨국립음악아까데미야극장 고전발레단, 로씨야 첼랴빈스크국립우랄무용단, 로씨야 월리나야 스쩨삐 까자크예술단, 몽골전군협주단에 단체상이, 여러 예술인들과 작품들에 안삼블상, 개인상, 창작상, 공로상이 수여되였다.

사진 리명국, 김윤혁, 홍광남 글 강수정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으로 들어서는 축전참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노래들과 자기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감정과 정서, 생활세태를 반영한 노래와 무용을 펼쳐보이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의 공연중에서

교예종목에 출연한 배우들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기교동작들과 뛰여난 재주, 황홀한 요술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세 쌍 둥 이

나라에서 세쌍둥이들과 그의 부모들에게 보내준 은장도와 금반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속에 무럭무럭 자라나고있는 조선의 어린이들속에는 서성구역 하신소학교 3학년 2반의 세쌍둥이도 있다.

그들의 이름은 조변화, 조이화, 조해근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서 살고있는 세쌍둥이의 아버지 조광빈은 평범한 로동자이고 어머니 최성금은 부양이다.

조선에서는 세쌍둥이의 출생이 나라가 흥할 징조로, 경사로 되고있다.

이 세쌍둥이들도 태여나자마자 나라에서 보내준 금반지와 은장도를 받아안았다.

그의 부모들도 은장도와 금반지를 받았다.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4칸짜리 살림집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그 집에서 세쌍둥이는 유치원시절부터 생활을 시작하였다.

국가적시책으로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은 그전까지는 모두 육아원에서 담당보육원과 의사들의 전적인 관심과 보호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글공부와 함께 음악공부도 시작한 그들은 소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교원들의 세심한 지도속에 동무들과 함께 재능의 꽃을 활짝 피우고있다.

과학자가 될 희망을 안은 변화는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 학교의 꾀꼴새인 이화는 미래의 명가수가 될 고운 꿈을 키워가고있으며 해근이는 탁구명수가 되여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겠다며 학교체육소조에서 탁구기술을 련마해가고있다.

아직은 자기들이 받고있는 사회주의무료교육제도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다는 몰라도 키워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은 세쌍둥이의 마음속에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그 마음을 안고 세쌍둥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몸도 튼튼히 하며 앞날의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감들로 자라나고있다.

육아원에서 담당보육원과 의사들의 보호속에서 자라는 세쌍둥이들

조변화 (첫째)

조이화 (둘째)

조해근 (셋째)

동무들과 함께

사진 리광성 글 김선경

첫 4중 태권도세계선수권보유자

인민체육인 신정화

지난 4월 주체체육과학교육의 전당인 조선체육대학 입학생들속에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로 활약하면서 10여년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을 기록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진 신정화도 있었다.

신정화는 주체93(2004)년 제6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때로부터 4차례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여러차례의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여러개의 컵과 30여개의 금메달을 받았다.

그는 소녀시절에 민족무도인 태권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였으며 태권도선수가 될 희망을 안고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구역 소년회관 태권도소조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소년회관에서 유능한 지도교원들의 지도를 받으며 태권도의 기초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그의 이악한 노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그나날 그는 해마다 진행하는 정일봉상전국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와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들에서 전도유망한 태권도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하여 그는 주체91(2002)년에 함경남도 태권도선수단 선수로 선발되였다.

그는 희망을 성취한 기쁨과 함께 자기를 키워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리라는 굳은 마음을 안고 육체훈련과 속도훈련, 재치성훈련과 인내력훈련, 타격힘훈련, 동작의 정확성과 일치성보장 등 다양한 훈련으로 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익혀갔다.

한번 마음먹은것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훈련본새는 그를 3년만에 국제경기에 나설수 있게 하였다.

제6차와 제7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개인맞서기와 단체틀, 단체맞서기경기에 출전하여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고 이어 주체96(2007)년 제15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그는 개인맞서기, 단체맞서기와 단체틀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태권도선수로서의 그의 실력은 제18차와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뚜렷이 발휘되였다.

상대의 전술과 실력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대담하게 뛰며 주먹치기와 180° 돌며 뛰여 발차기의 높은 특기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반타격전술로 공격하는 그의 모습은 수많은 관람자들과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경기장들마다에서 호신술과 개인맞서기, 단체위력 등 개인종목들과 여러 단체종목들에도 출전하여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체스꼬, 슬로베니아, 까자흐스딴 선수들을 또다시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여 4중 태권도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기술을 보여주어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빛내인것으로 하여 그는 주체102(2013)년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오늘 대학교정에서 흥안의 그 시절처럼 나라의 체육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신정화는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조선체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신정화 (가운데)

인간사랑의 화원속에

지난해 12월 어느날 평양산원으로는 평범한 녀성들과는 달리 삼륜차에 몸을 실은 류다른 임신부가 들어왔다.

병력서를 통해 그 녀성에 대한 사연을 알게 된 평양산원 2산과 의료집단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녀성은 경추압박골절신경마비로 하여 전신을 움직일수 없는 특류영예군인으로서 평양시 선교구역 무진1동 30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김향순이였다.

과에서는 여러차례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진지한 협의끝에 해산수술에 진입하였다.

한초한초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속에 마침내 새 생명이 고고성을 터치였다.

향순녀성은 평양산원 의료일군들의 정성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40여일간의 회복치료를 받고 자식을 낳아 안아보고싶은 소원을 이루었으며 만사람의 축복속에 퇴원하였다.

지난 2월에도 황해북도 황주군 황주읍에서 살고있는 평범한 농장원인 사평아녀성이 양수과소, 중중임신빈혈의 합병증을 고치고 세쌍둥이를 낳은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많은 새 생명들이 태여났으며 녀성들이 부인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2산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그들이 환자들에 대한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높은 의술을 소유하기 위해 바친 정열적인 탐구가 낳은것이다.

그들은 최근년간에만도 해산진단프로그람 《요람》 1. 0을 새롭게 개발하여 각이한 건강상태의 임신부들에 대한 진단과 정상임신부들의 산력표에 의한 해산방조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그리고 승권일의사는 이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부피바카인염산염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요부경막외무통해산방조에 성공하였으며 박명철의사는 해산진통이 미약한 임신부들에게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진동을 리용하여 진통의 세기를 보장해주는 진동식해산기와 주사기의 약물적수를 공기압력으로 밀어주는 공기압력식련속수액체계를 연구개발하여 도입하였다.

과에서는 산원에서 운영하는 먼거리의료봉사에도 적극 참가하여 각도 산원들에서 제기되는 임신부들과 산모들에 대한 해산방조와 치료를 도와주고있다.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로 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병훈

탐구로 이어온 40여년

김정일상계관인이며 인민과학자인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박사 박민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과학탐구의 길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인 박민열박사에게는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신조가 있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라!

나라의 재부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애국의 마음을 안고 40여년간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온 그는 미생물학계에서는 물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의의가 큰 과학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리과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한 그가 연구사업을 시작한지 여러해가 된 주체76(1987)년이였다.

당시 그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그 일대의 미생물상태에 대한 조사성원으로서 탐험길에 올랐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지만 그 하나하나를 조국의 재부로 여긴 그는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태동하는 속에서도 시료를 뜨고 분석을 하면서 천지를 비롯한 백두산일대의 미생물상태를 빠짐없이 조사등록하였다.

수년간에 걸치는 조사과정에 그는 백두산일대에만 고유한 천연젖산균을 발견하였을뿐아니라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거듭하여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리로운 여러가지 건강식품과 의약품들을 개발할수 있는 새로운 정향복합균발명에 성공하였다.

박민열박사는 새로운 균의 발명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시켜 여러가지 건강식품과 의약품들을 개발하였다.

소화기질병들을 예방하고 당뇨병치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좋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로화를 방지하는 정향복합균영양가루와 정향복합균발효음료, 정향복합균영양싸락, 정향청결수 등 그가 개발한 건강식품들과 의약품들은 효능이 높은것으로 하여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생물도 찾아내여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한 애국적헌신성으로 하여 그는 오늘 **김정일**상계관인,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인민과학자, 박사로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태현

여러가지 정향복합균 응용제품을 연구개발하고있다.

정향복합균제품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광복사터 전경

광복사터에서 나온 유물들

고려시기의 절유적 발굴

지난 4월 조선의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지역에서 고려(918년-1392년)시기 절유적인 광복사터가 새로 발굴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과 강원도의 민족유산 보호부문 일군들은 판교군 사동리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골안에서 이 유적을 발굴하였다.

절터는 문터와 탑터, 기본불상을 안치하였던 금당터, 강당터 등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금당터의 길이는 21. 1m, 너비는12. 7m이고 강당터의 길이는 52. 4m, 너비는 11. 9m로서 지금까지 고려시기의 제일 큰 절로 알려진 개성시 령통사의 금당터와 강당터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절유적은 비교적 평탄한 분지에 자리잡고있으며 기본면적은 1만 7 000여㎡정도이다.

동쪽구역과 서쪽구역으로 나누어져있는 이 절유적의 매 구역은 회랑에 의하여 둘러막혀 있었다.

유적에서는 《광복사》, 《광복대사》 등의 옛글이 찍혀진 기와쪼각들과 반구형무늬, 련꽃무늬, 모란꽃무늬의 기와막새들, 청동숟가락, 고려자기쪼각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해당 부문 전문가들은 새로 발굴된 절유적의 건물배치상태와 유물들, 력사자료들에 근거하여 그것이 고려시기였던 11세기경에 건립된 광복사의 터라는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고려시기의 절유적으로는 묘향산의 보현사, 개성의 령통사, 해주의 신광사터 등을 들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서부조선일대에 한정되여있었다.

이번에 동부조선지역인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에서 수백년동안 땅속에 묻혀 그 존재를 전혀 알수 없었던 큰 규모의 절터가 새로 발굴됨으로써 고려절들의 특징을 밝힐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마련되였다.

사진, 글 강수련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사진 조선중앙통신

국제민주녀성련맹 서기국회의, 집행위원회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2018년 국제민주녀성련맹 련대성행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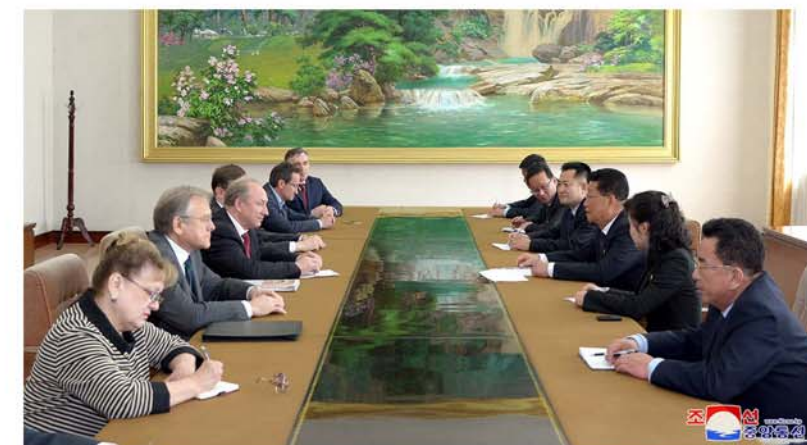
국제민주녀성련맹 회의에 참가한 외국손님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소 식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몽골인민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민주꽁고공산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가 《아시아의 저명한 인사들》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가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시대와 음악예술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2018 진행

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88113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화창한 봄계절의 평양 사진 김혁철